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

선교회지 APR 2014 '봄' 호 통권 17호

Universal Care

聖經 (The Bible)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지니라” (요 1:1)

"Missionaries"

선교사의 위기 II / 정태화 선교사

2014. 4. 5.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

Universal Care

'Universal Care'는 의료 및 교육, 찬양 등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통하여 선교사를 후원하고, 열방의 백성들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이 되기 위하여 결성된 선교회입니다

발행인/정진호

편집/ 편집부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0-2

트리플타워 A동 303호

Tel 032) 329-2875

Fax032) 329-2879

발행일 : 2014.04.05.



포스터

"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24:14)
(Designed by 강가영)

Contents

성경번역선교

- 02 양들은 무엇을 먹고 사는가? /안드레 선교사
- 05 몽골 찬송, 성경 번역의 역사를 통해 본 성경 번역의 중요성 /황필남 선교사
- 13 성경,하나의 책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 /엄하늘 선교사

"Missionaries"

- 17 선교사의 위기 II (선교사 전문 케어 중심으로) /정태화선교사

"파송"

- 22 선교지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나에게 떠오르는 생각들 /진리 안 선교사
- 25 엄 하늘, 진리 안 선교사 가정을 생각할 때 이렇게 기도해주세요.

선교지에서 온 편지

- 28 태국 치앙마이 /정도연 선교사
- 32 B국 /주바울 선교사
- 35 필리핀 양겔레스 /신동주 선교사

- 39 선교사 기도제목&선교회 소식
- 48 Universal Care 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

제19차 Universal Care 정기예배

聖經 (The Bible)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요 1:1)

"온 민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에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드리는 성경번역 선교사들의
아름다운 부르심의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선교의
눈이 열릴 것입니다!"

일시 2014년 4월5일 토요일 오후 5시

장소 월드와이드교회 3층 요셉홀 (지하철 7호선 굴포천역 8번출구)

강사 안드레 선교사

북아프리카 X국 선교사(1992년 8월 파송)
북아프리카 Bee 족 성경번역 사역
현 GBT 동원훈련부 대표
소속: GBT/GMS

찬양 와이즈맨 워십 선교단

파송 엄천영, 안수아 선교사 (M국)

성경번역선교

양들은 무엇을 먹고 사는가?

—성경번역선교의 중요성—

안드레 선교사

GBT/GMS 소속

북아프리카 X 국 선교사

GBT 동원훈련부 대표

태어나서 처음으로 양(羊)을 본 것은 북아프리카에 들어가기 직전에 서양문화 적응 오리엔테이션 과정의 하나로 영국에서 잠시 살았을 때이다. 들로 나가면 푸른 풀밭이 끝없이 펼쳐졌는데 거기에서 풀을 뜯고 있는 하얀 양

떼들의 모습은 바라보기에 참 부담 없는, 그야말로 평화로운 풍경 그 자체였다. 하지만 어렸을 때의 진한(?) 기억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나는 그 양떼들이 어떤 때는 스멀스멀 기어다니는 새하얀 이(蟊,louse)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런데 북아프리카에 들어가서 본 양떼들의 모습은 사뭇 달랐다. 하얀 양들이 아니라 누런 양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광야의 흙먼지를 가득 뒤집어써서 털들이 다 누렇게 더덕더덕 뭉쳐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양들이 먹는 음식은 영국의 양들과는 더더욱 달랐다. 사막과 광야 지방에 어디 시퍼런 풀들이 자라고 있단 말인가! 북쪽 지중해 해변가의 밀을 수확하는 지방에서 마른 밀단을 묶어서 양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

의 사료라며 팔러 오기도 하는데 - 한 단에 20,000원을 호가한다. - 이것 다섯 단이면 새끼 양 한 마리 값이니 비싸서 어찌 사 먹일 수 있단 말인가!

일 년에 두어 차례밖에 비가 오지 않는 이 사하라 지역에는 양들이 뜰을 풀들이 귀하다. 잎이 넓은 키 큰 나무들도 없고, 오로지 가시 나무와 키 작은 관목들과 엉겅퀴밖에 없다. 게다가 엉겅퀴에는 5cm가 넘는 가시들이 돋쳐 있다. 마치 탱자나무 가시와도 같은..... 동네 아주머니들은 망태기를 등에 짊어지고 들판으로 나가 바로 이 가시나무와 엉겅퀴와 마른 관목가지들을 굵어 모아 담아 온다. 그리고는 그것들을 마당에 쏟아 놓은 후 돌을 집어 들고 으깨기 시작한다. 탁탁탁탁 탁탁탁탁 한참을 두드리고 나면 이것들은 흙물 흙물해지는데, 이것들을 모아서 우리에 있는 양들에게 먹이로 가져다 준다.

몇 해 전에 한동대에서 새터민(탈북자)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다. 한창 탈북 이야기를 하다가 청중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여러분, 제가 살던 마을의 개들은 무엇을 먹고 사는지 아십니까?” 젊은 대학생들은 “고기요! 사료요! 주인이 남긴 음식물어요!” 대답을 했는데, 이 청년이 크게 역정을 내면서 말하였다. “뭐라고요? 우리 사람 먹을 음식도 없는데, 뭐 남는 게 있다고 개에게 줍니까? 우리 마을의 개들은요, 길썬에 나 있는 풀을 뜯어먹고 삽니다!” 청중들 모두는 경악했다. ‘뭐, 개가 풀을 뜯어먹고 산다고?’ 그런데 사실 못 믿을 것이 뭐란 말인가? 양들도 가시나무, 마른 나뭇가지 으깬 것을 먹고 사는데, 잡식동물인 개가 못 먹을 게

뭐가 있다는 말인가!

이처럼 짐승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먹는 음식이 달라진다. 북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양과 영국이나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양은 그 먹는 것이 다르지 않은가!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개 - 커다란 슈퍼마켓의 개나 고양이의 엄청난 사료 칸을 보라. - 와 북한에서 태어난 개도 먹을 것이 너무 다르지 않은가! 그런데 이것은 단지 짐승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 **사람도 어디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 육의 양식은 물론 영의 양식도 다르게 마련이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아마도 대부분은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셨기 때문이거나 누군가가 주변에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해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아직도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허다하다.** 자기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고, 누군가는 예수님의 소식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는 것이다. 그러니 역본이 너무 많아서 우리나라 교단과 교파별로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할까에 대한 치열한(?) 싸움은 어찌 복에 겨운 싸움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흔히 성경을 가리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이라고들 한다. 이 시간 집에 있는 자기 소유의 성경이 몇 권이나 있는지 잠시 세어보기를 바란다. 단 한 권밖에 자기 소유로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주변에서 찾아보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

가 너무 힘들다. 그러나 전 세계 약 6,900여 언어 부족 - 한국말이 이 중에서 하나의 언어인 셈이다 - 중에서 1,900여 언어(사용인구는 약 2억)로는 아직 단 한 절도 자기들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지 않다. 실례로 북아프리카의 한 나라는 인구가 약 1,050만 명 정도인데, 알려진 기독교인은 500명이고, 그 중에서 절반만이 자기들의 말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나머지 10,499,500명은 성경을 만져보기는커녕 눈으로 구경조차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셈이니 이같은 엄청난 불균형을 우리는 어떻게 깨뜨릴 수 있단 말인가?

방법은 분명하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 시간과 물질을 드려서 아직도 자기들의 모어로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한 미전도종족에게 성경을 전해주어야 이러한 불균형은 해소될 수가 있다. 바로 이러한 불균형을 깨뜨리기 위한 비전을 품고서, 온 세상 백성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영광돌리도록 돕고자 GBT(세계 성경번역선교회)는 존재하며, 또 다른 많은 선교단체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선교는 교회의 본질(missional church)이다. 그래서 GBT는 교회가 선교를 주도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섬기고 촉진하는 일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80여년 전, 남미 구아테말라에서 스페인어 성경을 팔고 있던 청년(윌리엄 카

메론 타운젠드)에게 “당신의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시다면, 왜 우리말로 말하지 못하는 겁니까?”라고 도전했던 어느 캅치켈 인디언의 음성은 아직도 세상 이곳 저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이제 그 음성에 반응하는 일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다.

로버트 콜만(Robert Coleman)과 그의 다섯 살 난 아들의 이야기를 기억하도록 하자. 하루는 땀을 뻘뻘 흘리며 정원 잔디를 깎고 있던 로버트 콜만(Robert Coleman) 선교사 옆에서 흙장난을 치던 다섯 살 난 아들이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안쓰럽게 느껴서 얼른 부엌으로 달려가 컵을 꺼내서 거기에 시원한 물을 담아다가 아버지께 드렸다. 그런데 물을 담아온 그 컵에는 흙모래가 가라앉아 있었고, 마른 풀잎도 둥둥 떠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렇게 더러운 컵에 물을 떠 오면 어떡하니? 내가 목마르다고 이걸 먹을 수 있겠어?”하면서 물을 쏟아버리지 않으시고, 대신 그 사랑스러운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순종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으실 것을 확신한다.

성경번역선교

몽골 찬송, 성경 번역의 역사를 통해 본 성경 번역의 중요성

항필남목사

몽골인 선교사
Universal Care 상임고문



서론 : 이번 유니버설 케어 선교회의 정기에 배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놀라운 주제이다. 우리가 늘 사용하는 성경, 그리고 선교사들이 미전도 종족에서 번역해야 하는 성경을 다루는 것은 영광스러운 주제가 아닐 수 없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본인은 여기서 몽골인 선교를 행하면서 몽골어 습득과 찬송가 번역, 사도행전 번역, 그리고 신약 성경 중 마태복음 번역 역사와 그 과정을 그려 보고 싶다. 그리고 여러 분의 선교사들과 현지인들이 번역한 성경의 열매들이 어떠한지를 여러 독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어

이 글을 쓴다.

1. 선교사의 선교 준비는 “원주민 언어를 배우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본인은 몽골에 들어가서 몽골 선교지의 현대 언어인 “끼릴 비치크”와 구 문자인 “호칭 비치크” 두 언어를 배웠다. 우리로 말하면 한글과 한문을 배운 것과 같다. 나는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러 갔지만, 그 곳에 가서 또 언어를 배워야 한다는 하나님의 과제를 수행해야 했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

영하 30도 추위를 이겨 가면서 언어를 배웠다. 어떤 때는 추위와 지나친 열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몸이 약해져 토하기도 했고, 들어 눕기도 했다. 나와 아내는 대학교 기숙사에 살면서 1년간 언어를 연수했고, 그 다음에는 Bridge 언어 학교(현재 대학이 됨)에서 현대 언어와 구 언어를 배웠다. 그리고 몽골 최고 국립 대학교 교수님 두 분을 비싼 봉급을 주고 배웠고, 국립 사범대학교, 국립 과학 아카데미 교수들과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몽골 교과서 저작자 인민 교수, 그리고 명석한 대학생들을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주면서 정당한 급료를 주고 언어를 배웠다. 총 20여 명의 교수, 초등학교 중고 선생님들과 대학생들로부터 언어를 배운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몽골인 가정(home)을 찾아가서 배운 언어를 사용해 보았다. 언어는 현장(field)이다. 언어는 사회 속에서 배워야 실전 언어가 된다. 실감나는 언어는 삶의 소용돌이치는 삶의 현장속에서 배울 때 현지인들과 교감이 있는 살아있는 언어가 되었다. 이를 위해 몽골의 도시, 시골, 먼 고비 사막과 초원의 목동들이 살고 가축을 치는 현장에도 찾아가서 그들의 삶을 체험했고, 삶속에서 희로애락을 나누며 그런 속에서 언어를 배웠다. 때로는 트럭을 타고 다니고, 때로는 짐차와 낡은 버스를 타고 다니며 여행하며 배웠다.

그리고 발음과 잘못된 언어 구사에 대한 교정을 현지인들과 언어 교사를 통해 받았다. 모든 몽골인들은 내가 구사하는 몽골어의 잘못된 내용, 발음, 그리고 사용 용도를 고쳐 주었

다. 우리 부부는 현대, 고대 몽골 언어 배우는 데만 최소한 2년 6개월동안 집중했다. 그리고 여기에 소요된 경비만해도 10,000\$ 이상을 지출했었다.

2. 언어를 배우자, 하나님은 “찬송가를 번역”하게 하셨다.

언어를 배우자 한 여자 선교사로부터 몽골에 찬송가가 없으니 찬송가를 번역해 보라고 제안이 들어왔다. 그래서 찬송가를 100곡 정도 번역하여 찬송가를 출판했었다. 찬송가 제 1~3집을 그리고 나중에 4집을 출판했었다. 약 4,000권 가량을 출판해서 공급했었다. 이렇게 찬송을 번역하면서 모은 “기독교 용어들”과 “일반 용어들”을 모아 “성경 번역”에 사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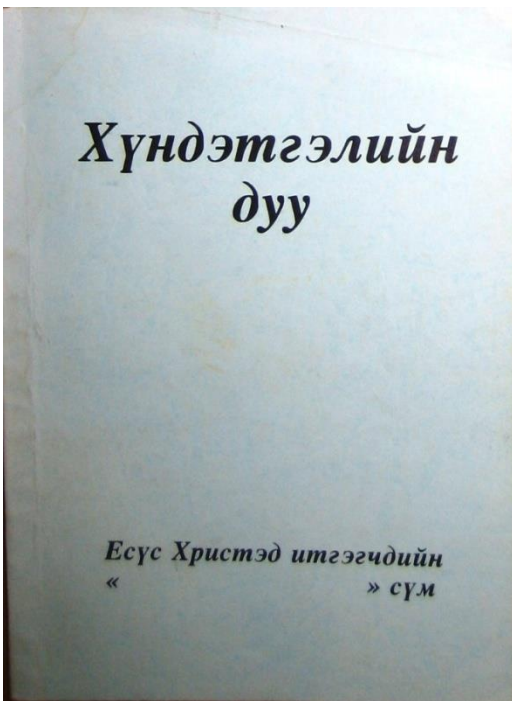
찬송가 번역 후에 사도신경도 번역해서 오늘날 몽골 교계가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선교사인 내가 번역했다기 보다 영어를 잘 구사하는 현지인을 시켜 번역하게 하고, 내가 수정하고 찬송가에 앞부분에 실어 보급시켰다. 사도신경도 선교사가 현지 언어를 모르면 더 훗날에나 나왔을 것이다.

찬송가 번역은 현재 몽골의 연합 신학교 교장이 된 푸름도르찌(당시 음대 교수였음, 그의 아내 아마라도 음대 출신), 마라나타 인터넷 선교지 출간자 밋듬도르찌, 톨가도르찌 음대생 등 5~6명이 함께 했었다. 푸름도르찌가 선교사와 번역하면 그와 그의 아내가 손으로 5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

지를 그려 악보를 그려 몽골말로 아내에 써 넣었다.

이렇게 밤을 지새우며 만들어진 찬송가는 한국에 원본이 보내어져 인쇄되어 컨테이너로 몽골에 2,000권이 최초로 들여와 몽골에 첫 찬송가로 보급되었다. 얼마나 피곤했던지! 얼마나 신이 났던지! 우리 손에 세상에 몽골어로 된 새 찬송가가 쥐어지던 그날이...



찬송가 3 판인 경배(예배용) 찬송가 (1995년판) 몽골인 번역본

3. 1991~1995년 당시의 몽골의 성경 번역의 상황들

선교사가 1991년 12월 9일에 몽골에 입국하기 이전에 이미 몽골에는 현대 몽골판 신약성

경이 존재했었다(1990년 존기븐슨 판). 그리고 이미 교회도 한 개(그리스도의 교회)가 있었고, 한 교회가 막 갈라져 3교회가 된 상태였다. 영국인 존 기븐슨(John Gibbins) 선교사는 영국에 있던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몽골에 있던 현지인 알타란 여자와 만나 결혼하고 신약성경을 우여 곡절 끝에 번역하여 교회를 개척하였던 것이다. 그는 이 과정에서 그가 번역한 성경을 현지인들에 의해 자기집 대문 앞에서 불살림을 당하고, 아내와 함께 감옥에 1주일간 수감되는 핍박을 받게 되었다.

우리 부부는 수 차례 존 기븐슨 선교사가 정과 우리 가정을 교대로 방문하고 교제했고, 때로는 다른 장소에서 만나 식사하며 성경 번역에 관해 교제를 나눈 적이 있었다.

이후 내가 몽골인들과 함께 번역한 성경 일부는 존기븐슨 선교사가 번역한 Good News Version(중학생이면 이해가 가능한 쉬운 번역본)이 아니라 NIV(New International version)를 가지고 번역했다. 이렇게 번역을 시도하게 된 이유는 선교사 본인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임 선교사가 번역한 성경이 축자 영감 성경이 아니라 해설집 같은 성경이라는 다른 선교사의 비판과 탄식 때문에 생각지 않게 성경 번역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번역을 시도했던 성경은 룻기, 에스더, 다니엘서, 마태복음이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있었다. 룻기 에스도 다니엘서는 당시 선교사가 교회에서 청년들과 대학생들을 가르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

때 당시 구약성경이 없어서 1장씩 번역하고 복사해서 나눠주고 성경을 가르치기 위한 필요에 의한 번역이었다. 주로 대학생들과 일부 청년들을 시켜 아르바이트로 약간의 비용을 지불하고 번역한 것이다. 몽골인에게 과제를 주어 번역해 오면, 장당 얼마를 수고비로 지불했다. 그런 다음 바르게 번역했는지 선교사와 함께 번역한 문장의 용어와 문맥을 확인했다.

이렇게 번역된 구약 성경들은 한 장, 한 장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고, 프린트로 출력한 후 다시 대형 복사기로 복사해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되는 신약 성경반과 구약 성경반에 온 몽골인 청소년들에게 공급되었다. 그것을 배운 13살 때 배운 아마라는 현재 몽골의 대 교회중 하나인 나이드바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고, 그의 아내는 볼로르(14살)는 몽골에서 가장 많은 37,000명의 대학생을 보유하고 과학 기술 대학교의 교수(Phd)이며 임시 부총장이 되었다.

신약 성경 중 마태복음 번역은 선교사와 몽골인 동역자들에게 큰 도전이었다. 지금까지 번역해서 사용한 구약 성경과 같지 않고 좀 더 길었다. 나는 그동안 영어 독일어 히브리어 헬라어 중국어 몽골어 한국어등 7개 언어를 배워본 경험이 있지만, 한국어 외에는 제대로 잘하는 언어가 없었다. 몽골어도 이미 설교한 지 3~4년이 되었지만 현지인에게는 아직도 조잡한 수준의 언어를 구사할 뿐이었다. 그리고 몽골인들 역시 젊고 패기가 넘치는 것을 사실이지만 아직 신구약을 완독해본 경험을 가진

자는 몽골 온 국민 가운데 전무했었다. 그들의 한국어 수준은 때로는 선교사의 몽골어 수준에 턱도 못 미쳤다. 그리고 그들의 영어 수준은 그런대로 대충이었다.

선교사가 영어나 러시아 고대 몽골어 어느 하나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한국어 성경은 한국인이므로 어느 정도 믿을만했다. 몽골인들은 영어를 하나 완벽하지 않고, 러시아의 70년 영향을 받아 러시아어를 상당한 수준으로 구사하는 능력이 있었다. 그리고 일부 몽골인중에는 옛날 몽골어(호칭 비치크)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다. 그래서 선교사와 몽골인 제자들은 우리들의 장점을 모아 마태복음을 번역하기로 했다.

그리고 선교사가 개척해서 목회하는 교회에는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의 젊고 총명한 청년들과 대학생들이 수두룩했다. 몽골 최고의 대학들을 다니는 우수한 학생들도 넘쳐 났었다. 당시 15-30세 미만의 청소년 550명(어른 예배 400명, 중고등부 150명)이 출석하고 있었기에 인재가 넘쳐 났었다. 몽골인들은 언어 배우는데 한국인들보다 10배는 더 빠르다. 그리고 한국말은 모음과 자음이 24개에 불과하다. 몽골어는 모음, 자음이 35개로 구성되어 있어 안 나오는 발음이 없을 정도이며, 듣기와 말하는데 능숙하다. 몽골인들은 천부적인 언어 감각이 우리가 부러울 정도로 뛰어났다. 몽골인들은 몽골어를 선교사보다 아주 정확하게 구사한다. 선교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장점들을 성경 번역에 활용한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

4. 성경 번역(마태복음)의 과정들

1) 성경 번역팀을 구성하다

성경 번역팀은 영어를 사용할 줄 아는 다기마, 배갈마, 바이카, 몽흐출롱 등 4명이고, 호칭비치크 몽골 근대언어에서 현대 언어로 호칭비치크 성경을 읽고 쓸 줄 아는 배갈마, 그리고 러시아어 성경에서 몽골어로 번역이 가능한 몽흐출롱, 그리고 선교사는 한국어와 영어 성경에서 그리고 일부 주석을 통한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 단어들을 골라 합작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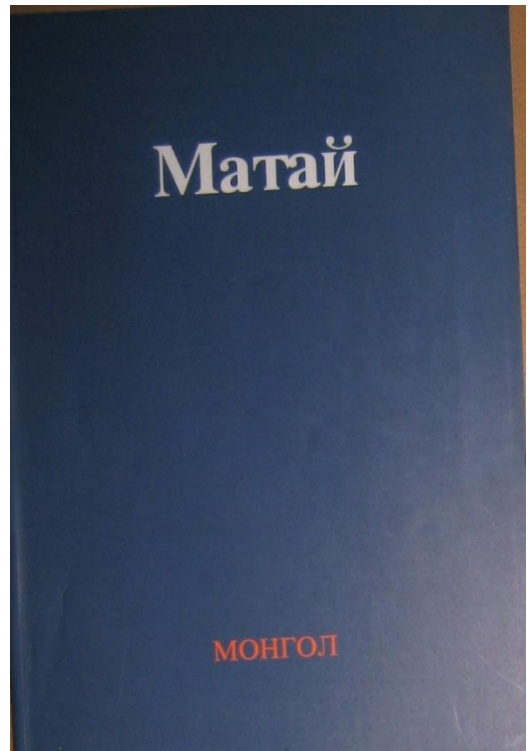
2) 각자 한 주간 번역한 성경을 가져와 합작하다.

영어를 아는 현지인들은 영어에서 몽골어로 번역하고, 러시아 구사자(몽흐출롱)는 러시아에서 몽골어로, 그리고 호칭비치크(구 몽골어)를 아는 자는 옛날 몽골어에서 현재 몽골어로 번역하고, 선교사는 한국어에서 몽골어로 번역을 해 주었다. 이것을 모으니 자연스럽고 기가막히게도 놀라운 현대판 축자영감 성경이 출생했다.

3) 하나님은 성경을 쓸 장비를 공급해 주시다.

당시 1993년은 몽골에는 막 컴퓨터가 도입되는 시기이다. 얼마 안 되는 컴퓨터와 프린터 그리고 220볼트를 110볼트로 다운해서 쓸 수 있는 강압기까지 한 셋트를 미국 와싱턴에 있는 지구촌 교회(당시 이동원 목사) 영어부

단기 선교팀이 척박한 몽골에 추위를 무릅쓰고 날라다 주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다. 그리고 다른 단기팀들은 몽골에 들어와 영어와 컴퓨터를 가르쳐 주었고, 수 백명의 청소년들이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다. 아주 적절한 시기를 맞추거나 한 듯이 선교사를 파송했던 부친 성문교회는 대형 복시기 제록스 한 대를 보내 주었다.



마태복음 몽골어 번역본(1995년판)

4) 선교 동역자 마이크 선교사는 영문판을 감수해 주었다.

몽골인 성경 번역팀과 선교사는 몽골어판을 감수해 나갔다. 그리고 특히 문맥을 잘 보는 데 재능이 뛰어난 배갈마(어머니 교사) 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

매와 바이카 형제(아버지 동양철학 박사)가 선교사를 도와 최종적인 수정 작업을 진행했다.

마태복음이 완료되자 몽골어판과 영어판으로 합작해서 성경을 출간했다. 선교 동역자인 미국 선교사인 마이크 Mike가 NIV 성경의 영어 성경을 감수를 해주었다.

이 과정에서 선교사는 오른손 중앙에 있는 손가락이 풍토병으로 썩어 들어가 잘라야 하는 상황에 처한 지도 모르고 성경번역에 몰두했었다. 연세병원 전의철 원장님과 몽골 의사들의 도움으로 하얀 연골이 나올 정도로 살점들을 수없이 칼로 도려내고, 한국에 가서야 서안복음 병원의 내과원장의 극적인 치료로 손가락 마디를 자르지 않아도 되었다.

5) 마태복음을 몽골어- 영문판을 출판하여 몽골에 보급하다.

원본을 한국에 보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감사하게도 2,000권을 인쇄하여 무슨 비밀 첩자들의 기밀문서처럼 조심스럽게 컨테이너에 다른 물건들과 함께 감추어 몽골에 성공적으로 들여왔다. 선교지의 상황이 아직 성경을 들여오는데 자유스럽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장과 자본과 기술이 부족하여 종이 한 장, 볼펜 하나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몽골이어서 다량으로 인쇄할 때마다 한국에 보내야 했다. 2,000권이 인쇄되어 몽골에 들어왔고, 이애리 선교사가 운영하는 기독교 서점(Book shop)과 교회에서 판매를 진행했다. 1~2년안에 판매가 매진되었지만 선교 재정이 없어서 더 이상 인쇄를 못하고 말았다.

훗날(2000년경) 몽골 성경이 완독해서 나올 때 미국 선교사 릭 레더우드는 마태복음을 낱자고 제안했지만 선교사는 거절해서 안타깝게도 현대 성경안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선교사는 그 이후 계속적인 구약 번역과 다른 성경을 번역을 시도했으나 체력과 목회와 선교로 인해 탈진을 거듭하다가 성경 번역을 독자적으로 진행하는데 마무리 하지 못했다.

현대 몽골 성경 번역에 쓰임받았던 많은 선교사님들(존 기본슨과 몽골인 동역자 50명, 안교성, 이애리, 다쉬)과 몽골인들이 기억에 남는다. 그 외에도 몽골 성경을 독자적으로 번역을 시도했던 일본인 다카시 선교사, 나카무라경을 번역했던 나카무라 선교사들을 알고 있다. 중국내 내 몽골 성경을 번역했던 이홍숙 목사님, 이HY 선교사, 신SN 선교사 등이 기억에 남는다.

5. 성경 번역과 열매들

성경 번역이 왜 중요한가? 다음 실화들을 읽어보면 성경 번역이 이래서 중요하다는 확신과 함께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리고 조용히 우리는 성경 번역 선교사들을 귀중히 여기게 된다. 그리고 그들을 돕고 싶어 지갑이 열리게 된다. 그리고 나 자신도 모르게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하게 될 것이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사단의 방해와 여러 가지 환경의 역경을 이겨내게 달라고 중보 기도하는 반열에 서게 된다. 그것은 분명히 말하지만 영광스러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

일이다!

1) 나의 선교의 20년동안 동역자가 된 배갈마 자매(현재 38세)

1992년 기본슨 판 몽골 성경(Good News Verison)을 몽힝 게렐 교회에 처음 나왔다가 한국인 황 선교사로부터 공짜로 받아 읽은 배갈마(20세 여자 청년)은 곧바로 자기 친척이자 동갑나기 게렐레(20세, 여 청년)를 전도하여 교회로 이끌고 나왔다. “왜 게렐레는 데리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지?” 선교사의 질문을 받고 그녀는 17년이 지나서야, “성경을 받아 읽다가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아 친척 친구를 인도했다”고 간증했다. 선교사는 그 자매와 6년을 같은 아파트에서 살았고, 17년동안 같은 교회와 같은 기관에서 일했지만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서야 비로소 성경의 힘을 발견하게 되었다.

2) 루터란 선교회로 가서 선교사의 동역자가 된 야가나

1993년경 어느날 몽골 우리 아파트에서 한 몽골인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던 야가나란 자매는 선교사에게 이런 말을 했다. “야마르고이 움베?”(얼마나 좋은지요?) 그녀는 존 기본슨 선교사 번역했던 축자영감이 아닌 현대판 몽골 성경을 들고 읽다가 은혜를 받아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선교사에게 중얼 거렸다. 그리고 얼마후 그녀는 호칭 비치트(옛 언어 성경) 성경을 읽다가 다시 감탄해 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초등학교 교사로 아직 초신자에 불과했다. 그녀는 훗날 루터란 몽골 선교사의 동역자

가 되었다.

3) 교회를 개척한 개척자가 된 바트 바야르 전도사

몽골인 나착아 장로는 2005년경 고비사막의 끝자락인 고르방테스 군을 방문했다가 한 승려를 만난다. 그는 자기가 전도하러 간 사원에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듣는다. 아무도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는데 이 라마 불교의 승려가 예수를 알고 있고, 믿고 싶다고 했다. 대충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를 전한 후에 나착아 장로님은 그 승려를 전도용 봉고차에 태워 선교사를 만나기 위해 진흙 도로를 9시간을 달려 으른고비 도의 달란자드가드 시까지 찾아왔다,

그는 인구가 10,000명이나 되는 그 마을에서 존경을 받는 라마불교의 승려였다. 나착아 장로가 군수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나보다 존경받는 승려에게 예수를 전해 달라고 해서 가서 만난 자가 그였다. 그는 오전에 복음을 듣고 9시간을 달려 저녁 8시경에 선교사를 만났다. 나는 그에게 어떻게 예수를 처음 알게 되었나?라고 물었다. 그는 11년 전에 한 사람이 예수 영화를 상영하는 CCC(대학생 선교회)팀이 전해 주고간 누가복음 쪽복음 한권을 받아 읽고 예수를 처음 알게 되었다고 했다.

이후 불경과 성경 그리고 성경, 불경을 비교해서 읽다가 성경을 택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렇게 자기에게 예수를 상세히 설명해 줄 사람을 11년동안 기다렸다 했다. 그리고 오늘에야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더 깊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

알고 싶어 당신을 만나러 이곳을 달려 왔노라!
했다.

그는 선교사인 본인과 만나 그날 밤 3시간
을 성경을 공부한 후에 지난 우상숭배를 회개
하고 무릎을 꿇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 그
리고 자기 마을로 돌아가 여러 권의 불경과
1,000가정에서 받은 하타크(몽골인들이 신상시
하는 푸른 천)를 리어커 한 대의 양을 싣고 야
산에 올라가 불태웠다. 염불을 외우던 자기 집
에서 교회를 시작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칼 낫 무기를 들고 와 죽일려고 달려들자 무
서워 1달간 집에서 나오지 못했다 한다. 마을
의 소요가 잠잠해 지나 다른 군에 가서 교회
를 개척했다. 그리고 돌아와 다시 자기 집에
교회를 개척했다. 지금은 자기 거주지인 고르
방테스 군에 “예수 복음 교회”를 담임하고 있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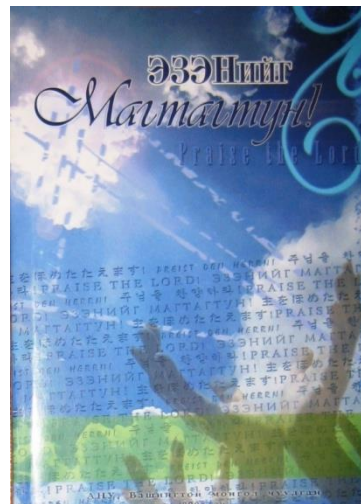
누가복음 한 권이 라마 승려였던 그를 11년
동안 영향을 주었다! 이름 모를 청년들이 들고
간 쪽복음 성경 보급의 열매가 이렇게 맺어졌
던 것이다!!!

마무리: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자신을 나타내시었다. 요셉이나 느부
갓네살 왕에게 꿈(Dream)으로, 다윗에게는 제
사장의 에봇에 걸려 있는 우림과 둠빔으로 하
나님의 뜻을 전달받았다. 때로는 선지자를 통
해서, 그리고 때로는 말씀으로, 어떤 때는 환상
으로 계시하셨다.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
들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다. **오늘날은 성령
의 시대다.** 성령께서 자신의 종들을 통해 기록

한 **성경 말씀(Bible)**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
하신다.

몽골 선교 초창기인 91-96년까지 대학생
선교회(CCC)에서 예수 영화를 상영하고 쪽복음
을 전달하려고 하니 청년들을 보내달라고 하
면 나는 무조건 허락했다. 그리고 나도 수없이
준 기본승 선교사가 번역한 누가 복음서를 수
십 박스를 사다가 전달했다. 그리고 수십 박스
를 무료로 기증받아 청년들을 시켜 몽골 전역
을 배달하도록 했다.

사람들은 번역이 시원치 않느니, 용어가
어떠느니하며 비평을 가해도 영적으로 배고픈
자들에게는 성경은 변함없는 은혜를 공급처
역할을 감당했었다. 성경을 번역하는 자들과
성경을 배달하는 자들은 낙심하지 말고 문서
선교 사역을 계속적으로 그리고 용기(勇氣)를
가지고 사역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때가 이르
면 거둘 것이기 때문이다”



“찬송가”
복음송과 예
배송이 섞여
있는 찬송가
(2004년판)

성경번역선교

성경, 하나의 책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

엄하늘 선교사

M 국 선교사

GBT 선교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 중 가장 긴 시간을 할애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 우리는 직접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의 전통으로 정착이 되어 있어 우리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견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상한 모습일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 그 근거는 바로 '성경'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기록되어 전해진, 그리고 우리의 글로 번역하여 기록되어진 성경이다. 만약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정말 좋은 이야기와 감동적인 이야기가 들려진다고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은 성경이다.

성경은 기독교에서 아니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그것은 절대적인 위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책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책 이상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

다. 바로 이러한 성경의 중요성으로 인해 성경번역 선교의 위치가 결정되어 질 수 있다. 성경번역 선교가 다른 어떤 선교의 방법들에 비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하지만, 성경번역 선교는 가장 기초가 되는 사역들 중 하나라고 주장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것과 관련하여 우리는 그 예를 멀리서 찾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바로 **조선** 즉, **대한민국**의 선교의 역사를 살펴볼 때 우리는 그 혜택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친숙한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들이 입국(1885년)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나라에는 부분적(1982년 - 누가, 요한복음, 1984년 - 마태, 마가복음)으로나마 성경이 번역되어 있었다.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와 활동을 할 때 이미 번역된 성경이 있어 사용되어 졌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할 수 있다. 그 이후 우리가 알다시피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때 조선의 신자들은 말씀 사경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삶을 바꾸어가는 등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성경)을 중요하게 여기며 그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이에 반해 우리와 선교의 역사가 비슷한 남태평양의 한 나라 **파푸아 뉴기니**가 있다. 그 나라에 1874년 영국의 한 선교회가 사역을 시작한 이래도 지금까지 수많은 선교사들의 선교지로 남아있다. 인구의 96%가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그들의 언어(그들은 700여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다민족 국가이다.)로 된 성경이 부재하였기 때문이다. 선교의 역사가 100년 이상이 되었기에 그들은 이미 선교사들에 의해 복음을 접했으며, 예배당이 있고,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실상은 선교사들이 철수를 하고 난 후, 그들 중 많은 부족들이 그들의 신앙을 점검할 그 어떤 것도 없었고, 시간이 흘러, 후에 선교사들이 다시 찾아갔을 때 그들은 기독교와 그들의 토속신앙이 결합된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꼭 한 가지 원인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그들의 말로 된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결과는 지금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렇다면 왜 그들의 말로 기록해야 할까?

모국어는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사용하여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분리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모국어는 가슴을 울리는 언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중 하나가 모국어로서의 기능을 하여서 그 언어는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슴을 울리어 감동을 주며, 그것이 마음에 남게 된다. 인류의 언어가 흩어지는 바벨탑 사건 이후 하나님은 한 민족을 택하셔서 다른 민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다. 그 계획은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제자들을 통해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각각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사건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현장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

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들이 난 곳의 방언 즉, 모국어로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었다. 이 사건이 성령에 의해 난 곳 방언을 하고 있는 자나 그들의 난 곳 방언으로 듣는 자에게 미친 영향은 어떠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또 모국어로 기록된 성경은 선교지에서 현지인들과 지속적으로, 영원히 함께 하지 못하는 선교사들과는 달리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선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교회 개척 사역이, 구제 사역이, 학교와 의료 사역이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속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그들 가운데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께 그들이 순종할 때 가능하다. 이렇듯 성경번역 선교는 다른 선교 사역을 더욱 귀하게 만드는데 의미있는 역할을 감당한다 볼 수 있다.

성경번역 선교회는 몇 가지 분야로 그 사역을 구분해서 진행하고 있다.

성경 번역 사역

이 사역은 성경이 없는 한 부족(민족)의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번역을 하는 선교사가 들어가서 그들의 말을 배우고(아직까지 글로 기록되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언어를 분석하여 문법체계를 찾아내고, 그들에게 적합한 철자를 함께 만들어서, 현지 번역자들

을 찾아서 함께 성경을 하나하나 내용과 단어들에 대해 논의하며 최선의 번역을 한다. 번역을 한 이후에는 번역이 잘 되었는지 점검을 (전문 컨설턴트와 신학적인 부분을, 번역에 참여하지 않은 현지인들의 이해를 위한 내용적인 부분을) 한다.

성경 활용사역

성경 활용 사역은 이미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이유(구전 사회이기에 아직 책을 사용하는 불편함, 글을 익히고 아는 사람들이 소수이거나,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보다 공용어로 된 성경이 더 좋아 보인다 던지, 교회의 목회자라 공용어 사용을 선호한다던지..하는 수 많은 상황이 있다.)로 성경을 교회들이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성경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사역을 말한다.

문해교육 사역

보통 성경 번역과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말을 철자로 만들어서 그것을 가르치는 문맹퇴치 사역이다. 글자를 배우는 과정이 그들에게 쉽지 않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중요하고, 글은 책 읽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기 때문에 부족어로 된 다양한 이야기를 창작하여 책을 만드는 작업도 있어야 한다.

언어조사 사역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

성경 번역 사역은 제한된 인력과 자원으로 인해 우선 순위에 따라 진행될 수밖에 없다. 언어조사는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준다. 어느 지역에 어떤 언어들이 있고, 그 언어들을 사용하는 수는 얼마나 되며, 그 언어들이 상호 연관성에 대해 평가하여 같은 언어군으로 묶을지 아니면 다른 언어로 구별할지, 언어 사용자들의 언어에 대한 태도를 평가하여 언어가 지속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사멸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 등등을 포함하고 있다.

다중언어 교육 사역

국제화 시대는 선교지에도 영향을 미쳐서 공용어가 강조 및 강화되며, 이로 인하여 각 부족의 언어들이 점점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현지인들의 필요를 돕고, 그들의 언어를 보존할 수 있도록 공용어와 그들의 모국어를 함께 병행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역이다.

교회 동원

선교지에는 현지 교회들이 있다. 그 교회들이 성경 번역에 대해 함께 동참하도록 알리고 격려하여, 번역 선교회가 주도적인 위치에서 그 주도권을 현지 교회에게 이양하고 협력하는 위치로 그 역할을 바꾸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사역은 성경번역 선교회 혼자 감당해야 할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다양한 선교단체와 교회들과 함께 이루어가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번역 선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인프라를 서로 주고 받으며 협력할 때 위의 다양한 분야의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현재 성경번역 사역이 본격적으로 진행된지도 7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부족, 접근이 용이한 부족, 복음에 호의적인 부족들은 많은 부분 진행이 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남아있는 부족은 인구가 적어서 이 언어가 시간이 지나도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것이거나, 아주 외딴 지역 또는 복음을 배척하는 부족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러한 제약은 비단 성경 번역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며, 그 명령은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 오늘도 확인하기 때문이다.

성경. 이 책은 단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으로서의 의미를 넘어서, 우리에게 인생에서의 삶을 비추어주는 등불로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이 책을 우리의 힘이 닿는 한 읽고, 연구하며, 번역하고, 가르칠 것이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날까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

"Missionaries"

선교사의 위기 II

(선교사 전문 케어 중심으로)

정태화 목사

러시아 연해주 선교사



한인 선교사의 위기는 바로 한국 선교의 위기이다. 오랫동안 사역을 한 선교사일수록 그 위기의 수위가 더 높다. 그 가운데 선교사의 탈진과 탈락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이슈이다. 전투력을 잃어버리고 버티기를 하고 있는 처절한 모습을 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볼 때 마다 그들을 살려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선교사 멤버 케어에 대한 많은 관심이 많은 나로서는 어떻게 하면 선교사가 건강하게 선교를 잘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본다.** 멤버 케어를 세 부분으로 나뉘 본다면 **첫째는 주님**

으로부터 받는 케어가 있고, **둘째는 선교사가 자기 자신을 돌보는 케어**가 있다. **세 번째는** 현재 가장 미비한 부분인 **전문 케어**가 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강을 위해 주님께 기도해야 하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 몸을 잘 관리해야 하며 아프면 병원에 가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만약 건강상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전문적인 의사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혼자 힘으로만 병과 싸우며 스스로 자신을 돌봐야 한다면 얼마나 위험한 순간들이 많을지 생각해 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

다. 어떻게 보면 지금 한인 선교사는 전문적인 돌봄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선교사가 아픔과 고통을 나누며 그것을 치료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과 인적자원이 없으며 이러한 일에 대한 인식 자체도 부족한 현실이다.

나는 러시아 연해주에서 14년 동안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는 전방 개척 사역을 하였는데 7년 차가 되었을 때 탈진을 경험했고 전투력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버티기를 하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다. **우수리스크라는 20만 도시에 한국 선교사 7가정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있는 동안 세 명의 선교사가 죽었고 5명의 후배 선교사가 5년을 버티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후 교회가 없는 지역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고 교회 개척 사역을 하는 선교사들에게 찾아오는 탈진과 약함을 해결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다.

그 해결책의 하나로 위기 가운데 있는 선교사를 전문적으로 케어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선교사가 멤버케어를 받아야 할 곳은 두 곳인데 첫 번째 장소는 본국이다. 선교사가 본국으로 들어 왔을 때 치료와 재충전을 받는 케어가 필요한 것이다. 두 번째 장소는 선교지이다. 선교사가 선교 현장에 있을 때 본국 전문 후원단체로부터 받는 케어가 또한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본국에서 받는 케어 부분은 언급하지 않고 선교현지에서 본국의 전문 케어 단체로부터 어떤 후원이 필요한지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한다.

물자 배달 후원

최전방 영적 전쟁터인 미전도 지역으로 헌신하고 나아가면 대부분의 땅이 오지인 경우가 많다. 오지 선교사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 물으면 물자에 대한 부족을 대부분 호소한다. 선교사가 한국 후원 교회에 먹을 것을 부탁한다는 것은 자존심도 상하고 또한 영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부탁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휴가를 갔을 때 들고 오거나 단기 선교 팀이나 손님을 의지하는 방법 밖에 없다. 일 년에 한번 본국에서 보내온 성탄절 선물이 담긴 소포가 도착하면 아이처럼 기뻐하고 흥분한다. 부끄럽지만 선교지에 있으면서 가장 기뻐던 순간 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

오지에 있는 선교사를 살리는 첫 번째 방법으로서는 매달 선교사가 필요로 하는 물자를 공급해 주는 후원이다. 이러한 물자 지원은 정기적으로 보내 주는 일이 중요하며 특히 선교사가 원하는 품목을 보낼 때 큰 효과를 거둘 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

있을 것이다.

한 달에 한번 100명의 선교사를 도울 경우 먼저 선교사에게 연락하여 주문 받은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다음 포장까지 해서 소포로 보내는 작업은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 그래서 방안으로 **재정적인 후원자와 매달 배달해 주는 후원자를 따로 구별해서 모집하는 것이다.** 그리고 물자 후원을 받는 선교사에게 본인에게 가장 편한 사람을 배달 후원자로 지정하게 하면 선교사도 쉽게 자신의 필요를 요청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매달 선교사의 탈진 방지를 위해 물자를 공급해 주는 사역은 선교사를 위로하고 선교사의 친구가 되며 선교사를 살리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베이스캠프 운영

히말라야를 등반하는 과정을 보면 산 중턱에 베이스캠프를 두고 정상에 도전한다. 만약 베이스캠프가 없다면 위험하기도 하거니와 정상을 오르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이제는 베이스캠프 없이 정상에 도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되어 버렸다. 전쟁을 할 때에도 군인들이 치료 받을 수 있는 야전 병원을

운영 한다. 어느 학자는 인류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힘든 일이 선교이며 선교의 실패는 당연한 것이고 만약 선교에 성공했다면 그것은 역사적인 대 사건이라고 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다. 최전선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꾸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그러나 선교사를 전쟁터에 보내기만 하고 선교현장의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는 본국에서 이해하거나 해결 할 수 있는 대안도 없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명령을 내리기에 너무 멀리 있기 때문이다. 선교사들의 문제를 파악하고 어려움을 해결 해 주며 사역에 대한 고민들을 상담해 주고 편히 쉬고 치료 받을 수 있는 베이스캠프가 필요하다.

베이스캠프를 통해 제일 받고 싶은 지원이 무엇이지 조사해 보았는데 상담 지원, 세미나, 안락한 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지원에서는 심리적인 상담을 제일 많이 받고 싶어 했다. 대중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과 사람이 없는 무인도에서 느끼는 외로움은 좀 다른 것 같다. 많은 선교사들이 외로움이라는 병을 앓고 있고 우울증의 공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교지 안에 베이스캠프를 두어 선교사들이 쉽게 상담 받고 편히 쉴 수 있도록 하는 전문케어가 필요하겠다. 열 두 곳의 나라에서 사역중인 선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해본 결과 베이스캠프를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한 곳은 중국이었다. 신분을 속이고 마치 스파이처럼 사역을 해야 하는 곳이므로 영화 속에 나오는 비밀 안전가옥이 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

요한 것이다.

베이스캠프를 위한 선교센터들은 이미 많이 확보 된 상태이다. 이러한 선교센터를 운영할 전문 사역자가 필요하고 베이스캠프 안에서 이루어질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과 운영에 대한 후원들이 필요하겠다.

이러한 베이스캠프는 선교사의 탈진에 대해 초기 진단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현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으로 후송해야 하며 한국에서도 치료가 불가능 하다면 미국으로 후송시킬 수도 있다.

선교사 위로를 위한 단기 선교

선교와 선교현장을 전혀 모르는 일반 성도가 평생 처음 선교지에 오면서 단기 선교를 통해 무엇인가 위대한 일을 하고 싶고 짧은 시간이지만 열매를 얻고 싶은 생각에 자기가 직접 선교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가져온 물자도 현지인에게 직접 나누어 주고 싶어 하고 재정적인 지원도 직접하고 싶어 한다. 그렇다면 며칠 하는 직접 선교에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을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현지 사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혼자 힘으로 전도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단기팀이 직접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수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결국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단기팀은 아무런 직접 선교를 하지 못한다. 그럼 단기팀의 직접 선교는 결과적으로 단기팀의 열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사실 전쟁은 현장에 군인이 하지 현장을 방문

하는 손님이 전쟁을 직접 하는 경우는 없다. 현장을 며칠 다녀가는 손님은 손님이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군인에게 필요한 물자를 가져오고 군인들을 위로 하는 잔치를 열고 전쟁 현장의 상황을 보고, 들어서 그 이야기를 본국에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단기팀이 선교사를 위로하고 돕는 것을 중심으로 사역을 한다면 직접선교를 하는 것 보다 훨씬 많고 다양한 사역들을 통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제작년 가을에 온 단기팀이 선교사 가정의 김장을 책임졌다.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각종 김치를 냉장고 3대에 가득 채워 주고 떠났는데 그 며칠의 사역으로 장기 선교사가 일 년 건강히 일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이다. 어떤 팀은 선교사가 1년 동안 필요한 모든 물자를 조달해준 팀도 있었다.

단기팀은 선교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선교사에게 관심을 가지고 선교사를 섬기는 것을 목적으로 단기 선교를 한다면 선교사를 살리는 멤버케어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선교사 자녀를 위한 단기 사역

세계에 흩어져서 사역중인 모든 선교사들이 공통적으로 받고 싶어 하는 후원이 자녀를 위한 단기선교사 지원이었다. 선교사 자녀들도 선교지에서 이방인으로 살면서 적지 않은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런 경우 본국에서 단기사역자가 방문하여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 같이 놀아만 주어도 많은 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

제가 해결된다. 같이 노래하고 춤추고 한국말로 게임 하고, 영화 보고 간식을 만들어 먹는 등 이런 사소한 것들이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 친구가 될 만한 젊은 단기 사역자를 선교사 자녀 치료를 위한 목적만으로 선교 현장에 보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를 훈련시키고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안에는 벌써 대학생이 된 선교사 자녀가 많이 있다. 선교사 자녀를 돕는 일에 이들을 활용하는 것은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본 국에서 해야 할 지원들이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네 가지의 후방 지원 사역을 지금까지 살펴보았다. 앞으로 보내는 선교 가운데 선교사를 위한 전문적인 케

어가 선교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기를 바래본다. 또한 이러한 후방지원 사역들이 여러 후원교회와 후원단체에서 시작되길 기대해본다.

두 번째 안식년을 미국에서 보내면서 공부도 하면서 재충전을 받고 있다. 이곳은 선교사들이 안식년을 보내기에 더 없이 좋은 곳이다. 그 이유는 휴가를 나온 선교사를 위해 본국에서 받을 수 있는 다양하고 좋은 멤버 케어 과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인 선교사 가운데 미국에 와서 안식년을 보내는 숫자는 2%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한인 선교사들은 재충전의 과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멤버케어를 받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본다.

"파송"

선교지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나에게 떠오르는 생각들

진리 안 선교사

M 국 선교사

GBT 소속

요즘 사물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사뭇
진지해졌다.

커피를 젖는 내 손에 있는 작은 티 스푼을
보면서도 예사롭지 않다.

‘이 작은 티 스푼 몇개 챙기는 건 많이 무게가
나가지 않는 거니까 문제 없겠지?’

아이들 어릴적 부터 이불 속에서 함께 뒹굴던
강아지 인형을 보며, ‘저건 비행기 탈 때 손에
들고 가면 무게 재자고 요구하지 않겠지?’

냉동실을 열다가 봉지에空空 밀폐되어 있는
고추가루를 보며, ‘고추가루.. 구하기 쉽지 않을

텐데, 구할 수 있다 해도 가격이 만만찮을
텐데, 그냥 이것 봉지째로 들고 갈까?’

잠자기 전 머리 말에 놓여진 일기를 쓰면서
‘펜이 참 잘 써지네. 당분간 깔끔하고 앙징맞은
볼펜 쉽게 구경하지 못할 텐데 이것도 들고
가자!’

내 마음 한 쪽에서는 이삭을 바치는 순간을
오롯이 통과한 결국 하나님 한 분 만으로
만족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이 자리잡고 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을 시간 속에서 경험하며
약속 그 자체였던 이삭보다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약속이라는 매개를 통해
경험하고 난 뒤 하나님만이 그 인생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이 내 안에 가득 들어있다.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나에게도 “나에게 주시겠다던 이삭을 달라니요? 뭐니까! 말이 되는 요구를 하시는 겁니까? ” 라고 하나님의 핀트와 안 맞은 어리숙한 질문으로 항변하는 대신,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한 믿음이 길고 긴 시간을 통하여 만져지고 들려지던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만났기에 이제는 도리어 확신 가운데 그 약속을 시작하신 하나님께 다시 그 약속의 결과물을 드릴 수 있었던 아브라함처럼만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거듭 거듭 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시켜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는 내가 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쪽의 나는 손에 익고, 눈에 익고, 입맛에 익숙한 것들을 포기하지 못해 한없이 요동하고 있다.

누가 그랬던가?

하나님을 위해 크고 기이한 일을 이뤄야 한다면 기꺼이 하겠다는 강력하고 일회적인 큰 순종보다 매일 만나는 아이들의 이런 저런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눈 맞추는 지속적이고 작은 순종이 지키기 어렵다더니, 선교사가 되겠다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확신하며 일하던 직장을 박차고 나왔던 것 보다 오히려 작고 보잘 것 없는 이리도 미미한 것들을 떠나 보내는 것이 더 어렵게만 느껴진다.

이런 익숙한 것들을 통하여 안정감을 누리고 싶은 걸까?

큰 것을 버렸으니 작은 것 정도는 보상 받아야 한다는 억울한 심정에서 비롯된 것일까?

인간의 편의와 편리를 추구하는 자연스런 욕구를 굳이 비하시켜 덜 준비된 영적 상태와 연결시킬 필요가 있는가?

갖가지 질문들이 쏟아진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

뭐..옳은 질문을 가려 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질문에 대답을 꼭 내려야 하는 것도
아니고, 답을 정확히 알아낸다고 해서 달라진
건 없는 것 같다.

그저 내 삶의 이런 저런 단면이 있다는 것을
차분히 받아들이면 되는 것 같다.

이제 나는 '두 달도 채 안 남았을지 모를
출국일까지 하나님 손 붙잡고 걸어가면
되겠구나..'하는 마음이 든다.

내 앞에 놓여진 길지도 짧을 지도 모르는
인생 속에서 내 마음이야 좌충우돌 수시로
오락가락하여 갈피를 못 잡고 작은 것에도
쉬이 흔들릴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베드로처럼
배 밖을 나와 용감하게 한 두발짝 움직인
믿음의 큰 걸음 뒤 한순간 눈과 마음에
들어와 버린 큰 파도로 아연실색할지도
모르겠으나,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
실수와 내 부끄러움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
하나님과 더 깊어진 관계에 맛깔나는 재료의
한 부분이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로 이런
부족한 나를 용납해주고 싶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것이여서가 아니라, 우리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기뻐서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빚으실 나를 기대하며
오늘도 부족한 헌신을 드리고 싶다.

어느날

자신은 편안한 곳에 머물며 하나님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다윗의 마음에
감동과 열망이 일어났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행동으로
웁기시게 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정말 기대하지 못했던 엄청난 것을
약속하신다.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진작에 결정된 당신의 뜻이 다윗의 기도로 좀
더 빨리 드러나게 된 것일까?

다윗은 그 벅참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누가 아는가?

나의 인생에 있을 이런 저런 헛다리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주의 약속이 또 어떻게
드러나게 될지..

'파송'

엄 하늘, 진리 안 선교사 가정을 생각할 때 이렇게 기도해주세요.

1.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가정이 되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뜻을 언제나 거룩한 지금, 거룩한 여기에서 출발한다고 믿습니다. 천수해리요 가정이 내일을 염려하느라 오늘 가장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과하지 않도록,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오늘 내가 살아야 하는 일상의 반복 중에서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그 분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하여 지나간 과거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구속하시며 우리의 미래를 당신의 뜻 가운데에서 예비하심을 믿는 견고한 뿌리 위에 하나님의 나라,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2.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를 분별하는 가정이 되게 기도해 주세요.

하루 하루를 살다 보면 우리 앞에는 어김없이 선택해야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사역의 성공과 사람들의 박수를 행여나 쫓고 사는 삶이 되지 않도록, 사람들의 내면을 잘 아셨던 예수님께서서 취하셨던 삶의 방식을 묵상하며 길고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선교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3. 다섯 식구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치안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주위에 도움의 손길이 없으며 의료적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곳에서) 살아가는 다섯 식구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온전히 의지하며 침착하게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장기 비자를 받을 수 없어 3 개월마다 나라 밖에서 일주일을 지내다 새롭게 3 개월 여행 비자로 갱신해야 하는데, 저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공급하심 가운데 안전하게 예비되었음을 믿고 즐거이 해야 할 몫을 감당하는 다섯 식구가 되게 기도해주세요. 오랜 시간 동안 장기 비자를 받지 못하더라도 또 행여 비자 갱신이 거부된다 할지라도 그 다음 단계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당황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4. 파송교회인 수원 서문교회와 저희와 함께 동역하는 단체와 개인을 축복하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저희를 파송해 주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재정적으로 녹록치 않은 상황 가운데 큰 몫을 담당하고 계시는 파송 교회의 담임 목사님 안에 날마다 새로운 힘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사람을 보고 하는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를 품고 기도하며 성도들을 사랑으로 세울 수 있는 넉넉한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아직 선교에 대해 잘 모르지만 저희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함께 물질로 기도로 선교의 몫을 감당하고 있는 사명감과 책임감이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음에도 저희를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계시는 교회, 단체와 개인들에게 주께서 따로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말씀과 뜻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동역의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각자를 인도해 가실지 기대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5. 저희를 보내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한지 오랜 시간이 지나 이젠 정말로 아들과, 딸과, 동생과 오빠를 보내어야 하는 시점 앞에서 헤어져야 하는 슬픔과 안전을 걱정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확실한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 분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희들이 떠난 빈 자리에 시선을 두기보다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서 가장 안전할 수 있음을 믿으며 더욱 더 기도하는 가족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선교사를 가족으로 둬서 주께서 주신 축복이 실로 큼을 고백하는 그들이 되게 기도 해주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

"파송"

후원 안내

단체명의로 되어있는 저희 가정의 가상
계좌입니다. 후원을 처음 하실 때에는 송금 전
또는 후에, 사무실로 전화하셔서 재정
담당자와 통화를 해주세요. !

외환은행 303-04-00019-349

예금주) 한국 해외 선교회!

재정 담당자 070-8670-6360

홈페이지 <http://gbt.or.kr>!

연락처

인터넷 전화 070-8265-7357!

이동전화 (엄) 010-4765-7357

(안) 010-6204-7334!

전자우편 chonsue@naver.com

sueaahn@naver.com!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suea.ahn>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

선교지에서 온 편지 I

사랑하는 동역자님들께 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오래전부터 초청을 받았지만
내가 마음의 여유와 시간을 내지 못해
늘 거룩한 섭섭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방문해
교제하기로 3주전에 약속을 해두었습니다.

20여 년 전 열심히 전도를 다녔던 마을들이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

현재는 우리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마을들입니다.

월요일에 25번째 비자연장을 하고 약속한 화요일,
새벽예배를 위해 일어나 화장실을 가다
심한 어지럼으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어찌 일어났는지 막내가 일어나
먼저 예배당에 올라간 아내를 불러와 위기를 넘기고,
좋아지면 출발하려 했지만 온 종일 이어지는
어지럼과 구토로 이날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 일정이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하루를 쉬어도 여전히 어지럼기가 남아 있었지만
기다리고 있을 사람들을 생각하니 누워있을 수만 없어
이기고 움직였더니 다행히 정신이 좀 맑아졌습니다.

24년 전 중학생이었던 제자가 카리스마 넘치는
영적 리더가 되어 나의 연약함을 도와 운전대를 잡고
당시 4-5일씩 걸어갔던 마을들을 방문해 갔습니다.

참 많은 변화가 보였지만 여전히 마음은 민망하기만 했습니다.

배낭을 메고 송충이 떼와 거머리에 소름끼치며 걸어가던 오솔길이
비록 아직 거칠고 험하지만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길로 넓혀졌고
아무리 깊은 산 속에 있는 마을일지라도 낡은 사륜구동차
한두 대씩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나뭇잎과 갈대를 엮어 만든 지붕은 대부분 함석과 슬레이트로 바뀌었고
엄마가 정성스레 짜준 전통 복장을 한 아이들의 모습이
마치 천사의 무리처럼 보였었는데, 이번에 만난
낡은 문명의 옷으로 갈아입은 아이들의 모습은 참 초라해 보였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

식탁은 대나무 쟁반에서 플라스틱 쟁반으로 바뀌었고
그 위에 떠놓은 붉은색 밥과 거친 산나물국 대신
찰기없는 흰밥과 계곡에서 잡은 생선 서너 마리에
아지노모도를 쏟아 부어 끓인 찌개와 마마라면,
생선 통조림에 입맛도 빼앗겨 있었습니다.

마을마다 학교는 세워졌지만 선생은 없었고
낡은 핸드폰을 들고 신호가 잡히는 높은 산봉우리를 용케도 찾아내
도시로 나간 아들딸 친구들과는 통화를 하고 있었지만
칼에 무릎을 찔러 죽어가는 17살 난 소년을
병원으로 옮겨갈 생각은 왜 하지 못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아이들은 많아졌는데 부모는 작아졌고,
곳곳에 교회들도 잘 지어져 있었지만 여전히 이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며 방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매일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유명한 산속에 자리한
한 마을은 말 그대로 등잔 밑이 몹시 어두웠습니다.
문명의 빛은 유혹뿐이었고 문명의 이기는 무지한 주민들을 향해
어두운 그림자를 길게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 한 것은 아찔한 낭떠러지 위와
깊은 계곡들을 수도 없이 이어 달리면서도
찬양을 멈추지 않고 이 일을 기뻐하는
현지인 전도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문명인의 시각으로 보면 참 보잘 것 없는 학력, 지식, 경험이지만
위임받은 영적 권위로 가르치는 이 전도자의 권면에 순종해
무당에게 돈을 주고 사서 사슬처럼 목에 걸고 있던 우상을 버리고
전도자를 따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

지금까지 기도하며

이 땅의 복음의 계절을 기다려주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2014년 3월 8일

태국 치앙마이 정도연,이미숙(다라, 혜진, 주라, 의라)

선교지에서 온 편지 II

B 국 소식

주바울목사
B국선교사



평안하신지요?

이곳은 날씨가 한 달 가까이 계속 해가 나지 않고 흐렸다가 며칠 전부터 해가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들려올 봄꽃 소식이 그리운 계절입니다. 변함없이 기도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몇 가지 소식을 전합니다.

B국 성서유니온 소식

1. 이전 서신에 B국 SU(Scripture Union, 성서유니온) 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3월 5일에 첫 공식적인 위원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곳은 국가 단체나 회사가 아니면, (특히 종교단체의 경우) 공식적으로 법적

지위를 가진 단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SU 위원회는 실제적인 이사회의 기능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회 멤버는 저와 B국 기독교신자연맹(B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단)의 H시 대표를 맡고 있는 C 목사와 또 전통적인 공인교단(CMA)의 S 교회에 출석하는 L 집사님(여성으로서 H시대학 영문학과 교수이고 지금 B국어 새번역성경 개정판의 B국어 어법 감수를 맡고 있습니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CMA 교단의 P 목사는 SU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올 해 일이 너무 많아서 차후에 위원회에 참여할 기회를 보기로 하고, 우선은 뒤에서 돕기로 하였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니 저의 진작의 바람처럼 이제는 현지인 중심의 리더십 이양을 향한 첫 기초가 마련된 것입니다. 당분간 제가 이끌어 가고 머지 않아서 위원장의 책임을 현지 지체에게 위임하려 합니다. 원래는 목상사역의 기초를 놓으려고 시작한 일이 주께서 잠시간 저를 사용하셔서 성서유니온선교회를 만드시도록 인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가 구성됨으로써 B국 SU도 이제 동서아시아 SU 내에 공식적인 조직체를 가진 기구로서 출발하게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사진 - B국 SU 위원회 모임)

2. 한국 SU에서 B국 SU를 위해서 귀한 헌금을 해주셔서 낡은 기자재들을 치우고 새로운 물품들을 구입하여 대체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연구년을 놓고 기도

요즘 연구월(년)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006년 4월 재입국한 이후 어느덧 8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안식년을 '연구하는 해'로 보내는 문제를 가지고 주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역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1996~2005년이 사역의 제 1기라고 할 수 있고, 2006년~2014년을 제 2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2기 동안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 목상사역을 기반으로 한 SU의 설립과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 모임이 그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중 SU의 비중이 더 컸습니다.

이제 제 3기의 사역은 가르치는 일과 교회 모임에 좀 더 깊이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서, 이 부분을 놓고 주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은 저에게는 또 다른 전환과 시작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준비를 위해서 다시 성경을 들여다보고 정리하는 연구년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몇 가지 정리해야 할 내용들이 있지만,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특히 구원의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

예수님께 영생 얻는 문제를 질문하러 온 부자 청년과 주님, 제자들의 대화 내용을 잘 살펴보면 결국 『영생=구원=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놓여지는 것 같습니다(마 20:16-26).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구원의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다만 연구를 스스로 조용한 곳에서 해야 할지 어떤 지도 속에서 해야 할지 주의 인도를 구해야겠습니다. 각각의 유익과 한계의 문제도 함께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아마도 후반기에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듯 합니다.

늘 함께 이곳의 선교사역에 참여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불충한 종이 되지 않고 항상 깨어 있어서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제가 되게 기도해주십시

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정리합니다.

1. B국 SU(북부) 위원회가 SU사역을 잘 지도하고 감독하며, 차차 현지인 중심의 리더십 이양이 잘 진행되게 기도해주십시오.
2. 제 3기의 사역을 위해 연구년의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주의 뜻을 잘 판단할 수 있게 기도해주십시오.

B국 H시에서 주, 문** 드림**

선교지에서 III

요즘 이곳 마갈랑에는 매일 오후면 강한 바람이 불니다.



신동주/이경면 선교사
필리핀 앙겔레스

3월 소식

요즘 이곳 마갈랑에는 매일 오후면 강한 바람이 불니다. 그래서 햇빛은 따가울지라도 바람 때문에 한국의 가을 날씨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어제 밤에는 건기임에도 불구하고 가랑비가 밤새도록 내렸습니다. 날씨가 조금씩 무더워져 감을 느낍니다. 학생들은 마지막 기말시험을 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이번 주까지 시

험을 마치면 긴 방학이 시작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르심 받은바 되고, 세계 선교의 동역자가 된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며 그동안의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오픈 하우스

3월 15일 "PSAU JDM 선교센터 오픈 하우스"를 했습니다. 명칭은 오픈 하우스이지만 양육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

하는 지체들의 부모님을 초대 하여 복음을 전하고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행사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준비한 저녁식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젊은이 사역을 하지만 사역을 할수록 느끼게 되는 것은 학생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 그 뒤에 있는 가정이라는 커다란 얼음덩어리가 물속에 잠겨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사역하고 신뢰를 보여주고 기도할 때 학생들을 훈련시키기가 훨씬 좋은 방법인 것을 깨닫습니다. 이번에는 세 가정의 부모님들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아직 소수이지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모님을 초대하는 행사를 매년 2학기가 시작되는 11월 중에 개최하여서 부모님들과 조금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매년마다 더 많은 부모님들이 참석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체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약 7개월 동안 제가 양육하는 7G1B(7명의 여학생과 1명의 남학생) 소그룹이 있습니다. 처음은 이렇게 많은 숫자의 학생들과 성경공부를 시작 했지만, 학교 스케줄과 학과가 달라서 4명의 자매가 중도탈락을 했습니다. 결국 4명인 3G1B가 되었지요. 이들이 지난 3월 12일 교재 마지막과 성경공부를 하면서 3명의 여학생이(락켈, 조이스, 저스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아직 이들은 카톨릭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어서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것이 더디고, 카

톨릭과 개신교의 진리를 혼동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진심으로 예수그리스도를 구세주요, 주인으로 영접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들이 영적인 삶과 깨달음에 있어서 더 깊고 올바르게 예수그리스도를 알아 영적인 성숙에 이르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캠퍼스의 제자로 우뚝서 이들을 통하여 캠퍼스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종강예배

3월 18일 2학기 종강예배를 했습니다. PSAU 영어과에 재학 중이던 2명의 리더들이(자나, 모니카) 이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종강예배와 더불어 세상으로 나가는 2명의 졸업생들을 파송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캠퍼스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지체들입니다. 그 옛날 모세의 죽음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이들을 축복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따라 올곧게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남겨진 임무가 있었던 것처럼, 캠퍼스를 통해 발견한 비전과 꿈을 포기하지 말고 머물게 될 그 땅에서 비전을 펼치며 살아가라는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들이 세상의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기억하며 기도하여 주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

지난해 11월27일부터 100일 동안 성경통독대회를 가졌습니다. 처음에 많은 지체들이 시도를 했지만, 완독한 사람은 두 명(모니카,미셸)이었습니다. 또한 미셸은 일독을 하였지만 더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다시 통독을 시작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한국에서



사가지고 온 예쁜 영어 성경책을 선물하여 이들의 완독을 축하해 주며, 지체들에게 도전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아직 못 다한 지체들이 다시 도전 받아 성경일독하기를 기대해봅니다. 또한 새로운 성경책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안에서 영적인 충만함을 누리며, 비전을 추구하는 삶을 계속하여 저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제자들이 더욱더 많이 늘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4월달에는

4월 1일부터 4일까지 하양소망교회(양겔레스소제)에서 필리핀 선교사 및 현지 간사 수련회가 있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20)는

주제아래 함께 모여 말씀의 은혜를 갈망하게 됩니다. 참석하는 선교사들과 현지 간사들이 주님의 역사하심 아래 영적인 회복과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편지를 받아보게 될 때쯤이면 수련회가 한창 진행중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실 것은 디도서 성경강해를 해주실 엄상섭 목사님과 특강강사(성경해석:엄상섭 목사님(JDM 한국대표), 리더쉽:조성철 선교사님, 기독교윤리:방창원선교사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간절히 아뢰어 주십시오. 강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디어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도록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작예배 중에는 처음으로 성찬예식을 하게 됩니다. 인도하시는 윤종대 선교사님과 그 시간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성찬식을 통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정과 한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새롭게 각인하고 연합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4월 1-2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L.T.C가 진행됩니다. 각 캠퍼스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삼기 위한 리더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참석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 안에 역사하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새로워지는 기쁨을 누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들은 캠퍼스의 미래이며, 하나님 나라의 미래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구령의 열정으로 캠퍼스를 향하도록 아뢰어 주십시오. 4월달부터는 학생들이 두달간의 긴 여름방학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

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기간이 선교사들에게는 오히려 더 바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체들의 각 가정을 방문하여, 부모님과 관계를 맺고 가정환경을 살피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안에서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기도하여 믿음으로 새학기 사역을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도 방학 중에 있는 특별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방학부터는 학년별 모임을 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학년별 모임을 통해 저와 지체들, 지체들 서로간에 긴밀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가족들은....

긴 방학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벌써부터 방학 중에 재미있게 시간을 보낼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바닷가를 가자고 조르기도 하고. 워터파크를 가고 싶다고 하며 이것저것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방학 중 한 번쯤은 가족들을 고려해야 할 처지인듯 싶습니다. 저와 아내는 방학중 언어에 집중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 영어 듣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고국은 지금 봄철인듯 싶습니다. 바쁜 일정속에 한번쯤은 자연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오묘한 손길을 느껴보시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좋은 방법인듯 싶습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꽃한송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실 수 있는 영적인 예민함이 삶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 드리며 이만 글을 맺습니다.

기도제목

1. 현시간사수련회(4/1-4)와 LTC(4/1-2)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주안에서 회복과 성령 충만함이 넘치도록
2. 방학에 들어가는 지체들이 영적인 삶을 지속하여 가정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3. 방학 중 사역에(심방, 학년별모임, 새학기 준비. 언어공부)믿음과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하도록
4.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그 힘으로 사역하도록
5. 언어(영어, 따갈로그어)공부에 집중하여 진보가 있도록
6. 졸업하는 리더들(자닌, 클라리스)의 진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도록

2014년 3월 24일

마갈랑에서

신동주/이경면, 예리, 경흠, 경찬 올림

선교사 기도제목

러시아로 스톱 나 다누 김우섭선교사



1. 진행되고 있는 건축이 내년 여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특히 내부 공사 건축비가 제 때 공급되도록
2. 신학교 사역을 위해 - 러시아 남부 지역을 책임질 좋은 지도자들이 양성되도록. 특히 신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개혁주의 교회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도록.
3. 교회 사역을 위해. 특히 크르바노프 바기프 목사님과 좋은 동역의 관계가 유지되도록.
4. 지민이의 학업을 위해

몽골 황필남선교사

www.pnhwang.com

1. 여름 몽골 단기 선교 5 개팀의 비자와 사역위해



2. 아내 김마레 선교사의 말씀 사역위해
3. 몽골 으른고비 교회 건축 마무리 위해
4. 버지니아 신학교 강의를 듣고 있는 70 명의 몽골인들의 복음 전파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 배성호선교사

www.josephbae.com



1. Life of Jesus Church (예수생명교회) 에 속한 청소년들과 주일 학교 어린이들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유일 하신 하나님을 경외 하며 살아 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

- 2, 여성의 평생교육을 통하여 가정과 지역과 남아공을 변화 시키는 하나님의 여종들로 거듭나며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는데 쓰임 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소서
- 3, 2014 년 중남부 아프리카 선교회 (16 개국 300 여 가정)에서 맡은 남아공 이스턴케이프 주의 지역장의 직임을 잘 감당하며 깨어진 관계에 화목케 하는 직분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 4, 포트엘리자베스의 센트럴 지역에서 구세군 교회와 협력하여 거리의 사람들에게 급식 하는 일에 지원 하는 일을 통하여 주신 것들을 마음껏 나누며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 5, 남아공 포트엘리자베스 한인 청소년 예배에서 부장의 직분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 하게 하옵소서
- 6, 가족의 건강과 영은이의 의학공부에 은혜의 은혜를 더 하셔서 넉넉히 감당 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것들도 채워 주소서
- 7, 지은이의 2015 년 대학 입학의 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인도 하여 주사 인류의 역사에 공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길을 가게 하소서

러시아 연해주 정태화 선교사



1. 세워진 교회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될 수 있도록
2. 세워진 리더들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3. 안식년을 통해 온 가족이 회복되도록
4. 고립과 탈진 가운데 있는 선교사들의 안식과 재충전을 위해 선교사 멤버케어를 위한 선교 운동이 한국안에 일어 날 수 있도록

필리핀 앙겔레스 신동주 선교사



1. 현지간사수련회(4/1-4)와 LTC(4/1-2)를 통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주안에서 회복과
성령충만함이 넘치도록

2. 방학에 들어가는 지체들이 영적인 삶을 지
속하여 가정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3. 방학 중 사역에(심방, 학년별모임, 새학기
준비, 언어공부)믿음과 성령 충만함으로 감
당하도록
4.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깨닫
고 그 힘으로 사역하도록
5. 언어(영어, 따갈로그어) 공부에 집중하여 진
보가 있도록
6. 졸업하는 리더들(자닌, 클라리스)의 진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도록

B 국

주바울 선교사



1. B 국 SU(북부) 위원회가 SU 사역을 잘
지도하고 감독하며, 차차 현지인 중심의
리더십 이양이 잘 진행되게 기도해주시시오.

2. 제 3 기의 사역을 위해 연구년의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주의 뜻을 잘 판단할 수
있게 기도해주시시오.

캄보디아

송찬송 선교사



1. 하루 하루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도록
2. 열방이 행복한교회 어린이와 성도들 4~5 월
무더위 잘 견딜 수 있도록
3. 땀뿜기 사업을 통하여 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4. 기도의 동역자, 사역 동역자 만날 수
있도록
5. 믿음이 변질 되지 않고, 복음앞에 날마다 설
수 있도록

All Nations Christian Academy (ANCA)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



1. MK학교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많아 질 수 있도록
(MK들에게 50%~100% 장학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학교 운영상 그만큼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2. 부모님들과 떨어져 있는 MK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부모님들의 손길이 그리운 자녀들입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히 그들을 돌보는 기숙사사감 (돔페어런츠) 께서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3. 원어민 교사들과 모든 학교 관계자들, 학생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A국

김아굴라/ 최브리스길라
선교사



1.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사랑하는 삶이 되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길, 그리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정될 수 있도록.
2. A 국에 더 많은 사역자를 보내주시고, 추방가운데서도 두려워 하지 않고 주께서 이 땅에 허락하시는 시간까지 목숨을 다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3. J 주에 소재하는 J 교회(집시교회)에 14 가정이 예수를 영접하고, 공동체를 이루어 살고 있는데 새로운 부흥을 주시고 더 깊은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이 많아지고, 리더인 M&N 부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더 깊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집시족뿐만아니라 우즈베크족에게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도록.
4. 2013 년에 이어 금년여름에 있을 청소년 수련회에 새로운 기름을 부어주시고, 더 많은 청소년들이 천국잔치에 참여하여 복음을 듣고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재정과 장소와 보안과 캠프를 도울 현지리더들의 안전을 위해.(2013 년 16 명 참석, 2014 년 30 명 목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

- 5.복음을 영접하고 가정을 이룬 젊은 부부들을 위해, 올바른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금년 중 부부세미나를 가지려고 하는데, 모든 계획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6. 생계거리가 없는 가난한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 '생계형 소자본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안디잔의 ㅇㅇ 아저씨 큰아들 부부가 소와 양을 사서 키우는 단계인데, 운영에 지혜를 주시고 또 다른 가정에도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이 프로젝트로 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자립하는 계기가 되도록.
7. 온가족이 영접한 복된 가정들이 말씀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강력한 가정교회들로 세워지도록.
8. 이때까지 우리가 만났고 알고 지내는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도록, 또 복음은 들었으나 불확실한 자들이 확고한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9. M 과 같은 리더를 발굴할 수 있도록; 품성 좋고 신실한 형제 자매를 양육하여,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10. 온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직 성령의 힘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진리를 타협하지 않으며 이 땅을 섬길 수 있도록.

네 딸의 학업과 진로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자녀된 자로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자녀교육에 필요한 재정도 채워주시도록)

큰딸; 예지-키르기즈스탄 슬라비안대학 (국제관계학과) 5 학년 졸업반 .--- 좋은 직장에 취업위해

둘째; 인지 한동대 1 학년입학.

---대학생활 잘 적응하기 위해

세째; 원지-현지고등학교 1 학년(고 1) 재학중.

네째; 현지- 현지학교 7 학년(중 1) 재학중.

M국 /GBT(성경번역) 엄하늘/ 진리 안 선교사



1.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려는 애씀이 주의 은혜와 인도 가운데 지속 될 수 있기를, 이것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빛을 자녀가, 가족이, 함께 하는 공동체, 주위의 비그리스도인들이 볼 수 있게 되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

2. 파송 예배(4 월 27 일)를 준비하는 서문교회와 저희와 선교 단체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 깨어 있어 서로 돕고, 섬기고, 사랑으로 헌신하기를
3. 하나님께서 저희와 동역할 수 있는 단체와 개인을 지속적으로 소개시켜 주시기를
4. 선교지로 가는 저희 부부, 아이들, 양가 식구들, 파송 교회에게 주의 격려가 충만히 부어지기를
5. M 국에서 함께 동역 할 가정들과 잘 소통하고 겸손함으로 교제 할 수 있기를

이스라엘

원두우 선교사



1. 교회 사역 : 예루살렘교회 성도들이 야외 예배 (4 월 27 일)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도록
2. 어린이 사역 : 베들레헴 어린이 야외예배 (4 월 25 일)와 베두인 어린이 현장학습(5 월 10 일)이 잘 이루어지고, 수고하시는 현지인 선생님들을 위해서

3. 고대근동연구원: 성지연구와 개발사역을 위한 현지법인 설립과, 베들레헴 시청과 협력하여 개원을 준비중인 태권도 도장을 위해서
4. IT 사역: PaSs Project(2015-2019)를 잘 준비하도록
5. 여름단기사역: 여름성경학교 (6 월 30 일-7 월 5 일), 베두인 어린이캠프(7 월 7 일-10 일), IT 기술학교 (7 월 7 일-8 월 9 일), 음악캠프(7 월 28 일-8 월 2 일), 청소년 지도자캠프 (6 월 23 일-28 일)등을 위해서

Universal Care 소식 및 기도제목

1. Universal Care 선교회지 2014 봄호 출간

2014 년도 "Universal Care" 선교회지 봄 호 (통권 17 호) "성경 -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지니라." (요 1:1) 가 출간 되었습니다. 선교회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책자나 이메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e-mail : jino0920@hanmail.net

2. 2014 몽골 아웃리치

주제 : 내가 불러 시킨 일을 위하여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행 13:2)

일시 : 2014. 5.2(금)~6(화)

주관 : 예음교회, Universal Care

이번 아웃리치를 통하여 몽골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몽골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돌아 올 수 있도록 기도 해주시고, 기도 후원자로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



3. 선교사 협력 파송식

이번 19 차 정기예배에는 GBT (성경 번역선교회), 수원 서문교회 파송으로 5 월초 M 국으로 나가시는 엄하늘, 진리 안 선교사님 가정의 협력 파송을 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파송식을 통하여 엄 선교사님과 Universal Care 의 영적인 동역의 끈이 더욱 견고해지길 기도합니다.

4. Universal Care 열방기도회

(토요일 오전 7 시)

매주 세계 선교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신 vision 을 위한 기도의 시간이 매주 토요일 아침 7 시 연세 U 치과에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5. 후원 및 동역 안내

신한은행 110-302-594082 (예금주 : 최혜원)

Universal Care 와 재정적으로 동역하고 후원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6. 선교사 동정

1) 황필남 선교사님께서 지난 1 월 말 부터 2 월초까지 유럽 단기선교를 다녀오셨습니다. 특별히 터키에서는 선교사 수련회 주강사로 섬기고, 독일 체코 등 몽골 교회와 가정들을 돌아 보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2) 황필남 선교사님께서 지난 2 월 20 일부터 3 월 3 일까지 석천교회 부흥회 강사 초청으로 내한 하시어 은혜롭게 집회를 마치시고, 허리 디스크 시술 등을 받으시고 예음교회와 Universal Care 몽골 아웃리치를 위해 회의 주관 및 예음교회 저녁예배 설교로 섬기셨습니다.

3) 연해주 정태화 선교사님 가정이 2013 년 8 월부터 안식년을 받고, 현재 미국 풀러 신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영육간의 회복을 주시고, 새로운 비전으로 채워 주실 것을 바랍니다.

4) 김우섭 선교사님께서 2 월말 러시아 로스토프 신학교 졸업생들과 졸업식 참가를 위해 3 주간 다녀가셨습니다. 바쁜신 가운데 UC 토요일방 기도회에도 오셔서 귀한 말씀과 사역 나누어 주셨습니다.

7. 제 19 차 Universal Care 정기예배

일시 : 2014 년 4 월 5 일(토) 오후 5 시

장소 : 월드와이드교회 3 층 요셉홀

강사 : 안드레 선교사(GBT 동원훈련부 대표)

찬양인도 : 와이즈맨 워십 선교단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황영석, 윤금희, 권현주, 김병광 박말향
양태부, 최미영, 신현우, 홍순향, 박현식
최선주, 김세웅, 신경숙, 황정희, 문영미
정진호, 최혜원

송도 맑은샘 음악학원, 벨엘교회
부천성문교회 중고등부, 연세U치과
장소후원 :월드와이드교회

8. 2014 몽골 아웃리치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기도제목

1.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여, 열방에 흩어진
선교사를 돕는 **요셉의 창고**를 허락하여
주소서.
2. 후원하는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기름
부으시어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소서.
3.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전세계를
감당하는 선교회 되게 하소서.
4. 100 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게 하소서.
5. Universal Care 를 통하여 전세계 흩어진
선교사들과 긴밀한 Network 가 형성되게
주소서.
6. 2014 년 주실 비전과 사역 계획 위에 주의
기름부음을 주소서
7. 북한 땅에 우상을 헐어내고, 그 곳에
병원과 학교와 교회를 세우게 하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

2014 Mongol Outreach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행 13:2)

2014년 5월 2일~6일(4박5일)

주요지역 : 교회학교, 의료지역, 노병 전도 및 문화 공연

모집대상 : 선교에 비전이 있는 누구나 가능

참가비 : 성인 120만원, 어린이 100만원

신청계좌 : 국민은행 288037-04-005894 (예금주:예음교회)

준비물 : 여권(유효기간 7개월이상), 여권사진 1매

협력선교사 : 황필남 목사

주최 : 부천 예음교회, Universal Care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

Universal Care

Universal Care 는 2009 년 6 월 23 일 첫 정기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Universal Care 는 주님이 오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도구가 되길 소원합니다. 또한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을 조력하여 그들의 사역과 삶을 돕고 살피며 더욱 힘있게 사역할 수 있게 섬기는 자의 자리에 서길 바랍니다. 또한 전 세계의 선교사들과 네트워킹하여 하나님의 재화를 적절하게 배분하여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에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요셉의 창고'의 역할을 하는 선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현재, Universal Care 는 몽골 황필남 선교사, 러시아 김우섭 선교사를 비롯한 10 명의 선교사와 2 개의 선교기관을 후원하고 있으며, 몽골 장로교 연합신학교 나랑체첵, 트무르 전도사, 선교신학대학교 앵크체첵 전도사에게 매 학기 장학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후원은 선교사들과 영적, 물질 관계의 끈을 잇는 최소한의 표현이며,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선교사의 친구**'가 되어 그들과 같은 눈으로, 선교지를 바라보며 주님이 하실 일을 꿈꾸는 것입니다.

Universal Care 는 이렇게 일할 것입니다.

첫째, 단기 Outreach 를 통하여 선교사의 교회개척 사역에 헌신할 것입니다. 이 Outreach 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육, 찬양, 의료, 금홍사역 등 모든 장르의 달란트로 종합적인 선교의 동역자로 설 것입니다.

둘째, 선교사 자녀를 위한 MK(Missionary Kids)를 위한 사역자가 계속하여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선교지에서의 단기간의 한글 교육, 또한 뮤직 캠프, 등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사역은 선교사로서 하여금 더욱 안정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며, 차세대의 준비된 선교사들을 섬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셋째, 선교사를 위한 Guest House 를 만드는 꿈이 있습니다. 물론, 독립적인 건물을 가진 것일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방 하나를 단기 입국한 선교사에게 내어 드리는 것도 귀한 나눔과 섬김일 수 있습니다.

넷째, 선교지에 대학 등의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선교지를 좀더 안정적으로 Support 하며, 그 민족의 리더십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예배를 통해 선교 헌신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한국 교회에 선교의 불을 더욱 크게 지피는 것입니다. 이것의 하나의 모습이 바로 Mission Conference 이기도 합니다. 매 분기(3,6,9,12 월)마다 드려지는 예배는 열린예배로 선교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이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이 일하시길 소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 1:6)

이 일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지길 기도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

제19차 Universal Care 정기예배

찬양인도 : 와이즈맨 워십 선교단

강사 : 안드레 선교사

(GBT 동원훈련부 대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소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 22 : 20)

후원선교사

황필남 선교사 (몽골) www.pnhwang.com

김우섭 선교사 (러시아)

배성호 선교사 (남아프리카공화국) www.josephbae.com

정태화 선교사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

신동주 선교사 (필리핀 앙겔레스), 주바울 선교사 (B국)

엄하늘 선교사 (GBT 선교회), 송찬송 선교사(캄보디아)

김아굴라선교사 (A국) / 원두우선교사(이스라엘)

All Nations Christian Academy (ANCA) – MK 국제 학교

Universal Care 장학금

: 몽골 장로교 신학교 : 트무르, 전도사

몽골 으른고비신학대학 : 알탕 체체크 전도사 전도사

몽골 후레 대학교 앵흐 자르갈 전도사

Universal Care

www.cyworld.com/universalcare